

古庵과 그의 歌辭

尹 榮 玉*

< 目 次 >

I. 古庵

1. 家系
2. 生涯

II. 古庵의 歌辭

- | | |
|------------|------------|
| 1. 導言 | |
| 2. <원한가> | |
| 1) 창작동기 | 7) 媳母喪 |
| 2) 出生과 孤子 | 8) 還故鄉 |
| 3) 出嫁와 移鄉 | 9) 遣腹女의 死別 |
| 4) 西間島로 移住 | 10) 媳父喪 |
| 5) 喪夫 | 11) 相思 |
| 6) 遣腹女의 出產 | 12) 餘恨 |

III. 結論

<요 약>

古庵은 朴坤復(A.D 1896-1953) 의 號이다. 대대로 관작과 덕망으로 세상에 알려진 명문의 후예다. 빼어난 자질과 단아한 용모로 기품이 강의하고 사려가 깊었다. 학업에 전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덕을 기르며 경륜을 쌓았다. 선조의 업적을 추모하는 한편 후학을 친절히 훈도하였다. 山水를 좋아하며 선인들의 유적지를 찾아 士友들과 음영하며 즐겼다.

漢學에 전념하였으나 신학문에 문학을 공부한 문인들과 교유하면서도 과거의 문학형태인 가사로 작품을 남겼다.

* 영남대학교 한국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의 문집에 <도천별곡>과 <원한곡>이 실려 있는데, <도천별곡>은 출가한 여인들이 思親하다가 歸寧하여 桃川精舍에서 하루의 놀음을 즐기는 장면들과 女身으로서의 삶의 제약을 엿은 것이다. 花煎歌의 한 변형이다. <원한곡>은 태어난지 5삭만에 부모를 다 잊고 외로이 자라 출가하였다가 이국 間島에 유리하여 남편마저 잊은 청상의 원한을 술회한 일종의 술회가이다.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석별고>라는 작품이 필사본으로 가장되어 전한다. 이들 작품에서는 남성의 작가가 여성화자가 되어 작품을 전개해 가고 있는 실례를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원한가>의 텍스트를 제공하여 그것을 분석·해명한다

<Abstract>

KO-AM and his KASA

YEONG-OK, YOON

Professor of YEUNG-NAM University

KO-AM(古庵) is a pen name of PARK,KON-BOK(朴坤復A.D. 1896-1953). He was descended from an illustrious family. He was endowed with emineient disposition, regular features and fortitude. Accordingly he was thoughtful. Working hard he built up character and cultivated virtue, and then had executive ability. On the hand enhanced his ancestor's achievements and on the other hand trained the young. Loving mountains and waters, he visited the predecessor's vestiges and composed poems on it and recited them.

Studying Chinese classics, he kept with the poets of the new learning, but wrote KASA(歌辭) that was a bygone literary form.

In his anthology are DOCHEON-BYULGOK(桃川別曲) and WOUNHAN-GOK(怨恨曲), the former is a KASA in which women played one day at DOCHEON-JEONGSA(桃川精舍) and sung their life as women, the latter is a work that was related thoughts and feelings by a woman who was lefted an orphan as a five-month-old baby and married to one man, but lost her husband in an alien land KANDO(間島) and so became a young widow. His another work SEOKBYULGA(惜別歌) is handed down as a roll of paper in own house.

In these works the man writer unfold the affairs and feelings as a woman. In this paper presenting the text WOUNHANGOK, I analyse and explain it.

I. 古庵

1. 家系

公의 謂는 坤復, 初諱는 柄復, 字는 元雷 姓은 裴號는 古庵이다. 密陽 朴氏로 고려 三韓壁控都 大將軍 謂 郁이 그 上祖이다. 그로부터 대대로 官爵과 德望으로 세상에 알려진 명문의 후예시다. 특히 조선조 임진왜란 때 11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를 모시고 적진으로 달려가 勤王한 공훈으로 특별히 訓鍊院 奉事を 제수 받고 뒷날 學問과 德行으로 친거되어 通政大夫上護軍에 승진된 桃菴 朴應福의 10세손이다.

고조의 謂는 大環이요, 曾祖의 謂는 容春이요, 祖의 謂는 文祚요, 考의 謂는 仁檜니, 모두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고 林園에서 學問을 닦고 德을 기르며, 世傳의 儒業을 繼述하였다. 比는 永陽 李氏 錫崑의 따님이니 婦德을 겸비하였다.

2. 生涯

公은 高宗 33년 丙申(1896)에 花川里 옛집에서 출생하였다. 빼어난 資質과 端雅한 容貌로 氣稟이 剛毅하고 思慮가 깊었다. 겨우 6·7세에 이미 同異의 辭論을 알아 門鄉의 長德들로부터 많은 寵愛와 期望을 받았다. 어린 나이로 먼 書塾에 나아가 글을 배움에 先公의 각별한 慈愛와 嚴正한 教導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낮으로 精勵하여 文詞가 夙達하였다.

成冠에 이르러 甥館 寧海에 출입하면서 그곳 賢士들과 追隨交遊하여 見聞을 넓히고, 婦兄 南五堂公과 더불어 立身行己의 道理를 강구하여 좌우로부터 많은 讀辭를 받았다.

그러한 公이 15세 때 逆賊들의 用事로 倭賊에게 치욕적으로 병탄되어 悲憤慷慨한 울분을 스스로 억누르고 오직 뒷날의 好機를 기다리며 더욱 학업에 전념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덕을 기르며 經綸을 쌓았다.

이때 마침 抗日義士이자 당대의 석학인 晦堂 張錫英 선생의 높은 덕망을 전해 듣고 문하에 나아가 執贊受學하여 학문이 더욱 精深해지는 한편 抗日의 思想도 고조되었다. 그래서 晦堂先生의 항일운동을 마음으로 돋는 한편 항일의사인 心山 金昌淑 선생을 높이 흠흥하여 從遊交密하였다. 한편 斯文의 쇠퇴를 걱정하여 멀리 중국의 巨儒 夏靈峯에게 서찰로 儒學의 復興을 논하며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

公은 道德이 무너지고 倫理가 해이해져 가는 것을 깊이 개탄하고 도덕과 윤기를 독실히 실행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蔡水를 잊지 못할 정도였으나 능히 자력으로 志体의 봉양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追遠報本에도 誠力 을 다하여 先亭을 증진하여 거기에 거처하여 先祖의 紋蹟을 추모하는 한편 後學들을 誄諱善誘 하였다.

또한 山水를 좋아하여 名所에 있는 先人們의 樓臺亭閣을 두루 찾아 士友들과 吟詠하며 즐겼다. 특히 晦堂先生의 손자인 淡齋 張一相과 더불어 玉溪를 거쳐 金剛山을 역람하면서 기이한 景觀을 詩로 模寫하였다.

마침내 乙酉年(1945) 光復을 맞이하여 고을 사람들의 추천으로 地方維持

會 회장으로 선임되어 온 고을을 무사하게 하였으며, 啓聖中學校 한문강사로 초빙되어 教導하다가 母夫人的 褒故에 지나친 哀痛으로 戊子年(1948) 2월 27일 53세로 생을 끝맺게 되었다.

II. 古庵의 歌辭

1. 導言

古庵이 後學들을 教諭하며 묶고 있던 桃川精舍에는 당시 儒林門客과 獨立志士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世情을 논하며 豪國의 盟約을 이룩하기도 했다. 慶州人 金凡夫와는 누구와 보다도 절친하게 漢學과 新學問으로 交분이 두터웠다. 金凡夫의 아우 金東里와의 만남을 위시하여 개화기이후 新學問의 文人们과 술한 접촉을 하였다.

당시 문단에 처음 등단한 20년 연하의 朴木月은 漢詩에 능한 古庵을 찾아 毛良에서 자주 왔다. 安東人이면서 永川의 安家에 출입한 李陸史와도 깊은 우정의 知己였다.

漢學에 전념하였으나 新學問에 文學을 공부한 문인들과 교유하였으면서도 과거의 문학형태인 歌辭로 작품을 남겼음은 특이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李建昌의 장편 한시 <喂馬行>을 번역하였는데, 그 사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한양조 11대 임금이 되었던 이는 연산군이다. 극히 무도하여 살육의 이변이 무상함에 三勳이라는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의 아우인 진산대군을 받들어 임금으로 모시고 연산군을 내쫓았으니 새로 되신 임금이 곧 중종대왕이며 이 일을 가리켜 중종반정이라 하고 세 사람을 반정공훈으로 삼훈이라 일컬었다.

본래는 진산대군의 부인으로 지금은 왕비가 된 憲氏의 아버지가 반정 군들에게 죽고 그 친척들도 모두 화를 입었다. 그래서 삼훈들의 생각에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 딸을 중전으로 두었다가는 반드시 멀지 않아 자기들의 신변에 화가 미칠 것이라 하여 중종임금에게 大義라는 명목을 앞세워 심지어 임금을 협박하기도 하여 憲王妃를 폐출하였으니 왕비가 된

지 겨우 아흐례 만이었다. 할 수 없이 폐출하기는 하였으나 중종 임금이 항상 憲王妃를 잊어버리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디로 거동을 하다가 마침 왕비가 갇혀 있는 폐궁을 지날 때 더욱 옛정이 새로워졌으나 어이할 수 없었다. 이에 그만 자기가 항상 타던 말을 슬그머니 풀어놓았더니 그 말이 신씨가 갇혀 있는 폐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네 굽을 치고 큰 소리로 울어댔다. 이에 신씨가 말만 보고도 너무나 뜻밖이라 반갑고도 어이없어 쌀로 죽을 끓여 먹였다.

그런데 그 죽을 끓이고 먹이는 동안 반드시 홍얼거려 스스로 탄식하는 몇 마디의 노래가 있었을 것이 常情이나 그 노래가 역사로는 전해진 것이 없었다.

그 후 4백년이 지난 조선 말엽에 역시 왕실 종친인 영제 이건창선생이 신왕비가 말 죽 먹이던 그때 심정을 한 번 그려보려고 신씨를 대신하여 한 편의 漢詩를 읊었으니 이것이 많은 시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喂馬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시로 되어 있어 뜻이 깊고 멀어 한스럽고 서러운 내용을 보편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을 내가 매양 애달프게 여긴 것이 오래였다. 때문에 한 두 사람의 친한 시인에게 번역을 부탁하였으나 응답만 하였을 따름이었다. 이 때 마침 나의 벗 李陸史군의 방문을 받아 세상과 떨어진 어느 산골 숭방에서 그 병을 조섭하고 위안하게 된 틈을 얻게 되자 용하게도 적수를 만나고 때를 얻었다 하여 같은 부탁과 허락을 주고 받았더니 뜻밖의 일로 또 헤어지게 되었다.

이에 다시 생각하기를 이것이 詩도 시이려니와 그 애절 처참한 내용을 널리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 부인들과 아동들에게 알리고 싶은 급급한 심정으로 적임여부를 무릅쓰고 그만 내 스스로 번역을 시도하여 우선 첫 머리로 ‘왜마행’이란 글 제목부터 <말먹이는 노래>라고 붙여 보았다. 그리고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원작을 중시하면서도 우리의 노랫가락에 맞추어 보려고 애썼으나 워낙 문외인이라 아무리 하여도 우리 글로써 시나 우리말로써 노래가 될 수 있겠는가. 겨우 한자를 국문으로 바꾸어 쓰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장으로 매었던 책자를 양장으로 고친 셈이라 깊이 부끄러우나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 홀륭한 시인이 나와 바로 잡아 주시기를 기다리는 바가 적지 않다

임오년(1942) 칫가을(음력7월) 밤 열차로 벗을 멀리 보내고 외로이 비내리는 금오산 암자의 한 구석방에서

中宗反正으로 寶位에 오른 中宗의 妃가 王妃된지 9일만에 廢位되어 겪는 참담한 심정을 詩化한 李建昌의 <喂馬行>이 널리 읽히지 못함을 애석히 여겨 그것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말로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말 가사로 바꾸려 하였던 것이다. 이 번역 작업을 여러 시인들에게 부탁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끝내는 古庵 스스로 이 작업을 하여 제목마저도 <말먹이는 노래>로 바꾸었다. 그가 택한 노래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던 지

는 알 수 없으나 개작의 언어표현을 보면 이른바 歌辭體의 律調가 두드러져 있다. 그것은 그 序頭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임이 너를 보냈으니 임의 일을 네 아리라
임의 행차 어디시며 옥체무량 하시던가

가 그것이다. 그는 아마도 가지가지의 가사작품에 많이 접해 그것을 作品化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그의 文集에 <도천별곡>과 <원한곡>이 실려 있는데 <도천별곡>은 他地로 出嫁한 여인들이 思親하다가 무신년 윤이월 염칠일 歸寧하여 桃川精舍에서 하루의 놀음을 즐기는 장면들과 女身으로서의 삶의 제약을 읊은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 “신라기원 1990년(서기1942) 무신 윤이월 염칠일 작사자 고암 박곤복”이라 하였으나 1942년 壬午年이고 戊申年이면 1908년이 된다. 작품 가운데서도 “무신 윤이월”이라 하였는데 실제의 놀이와 상거하는 제작연대를 한데 묶은 오류인가 한다. 이 작품은 소위 <花煎歌>의 한 변형이라 생각된다.

<원한곡>은 落地한지 五朔만에 嚴父 慈母를 다 잊고 孤孤子子 자라 出嫁하였다가 異國 間島에 流離하여 남편마저 잊은 靑嫗의 怨恨을 술회한 일종의 술회가이다.

文集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석별고>라는 작품이 필사본으로 家藏되어 전한다. 이들 작품에서는 남성의 작자가 작품 가운데서 女性話者化하여 작품을 전개해가고 있는 하나의 실례를 제공해준다. 여성화자에 의해 전개되는 작품의 작자가 다 여성인 아님은 松江의 두 美人曲에서도 증명된다.

2. <원한가>

1) 창작동기

여기서는 <원한곡>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작품의 창작동기를 작품의 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고 있다.

⑭ 곡곡이 미친소희 만분지일 고록코져
 지목을 다다르니 터산하히 부족이라
 연아너 힘업시나 국문공부 착실호야
 말이란것 되고말고 이리고저 한것이나
 너이것 간슈호야 간간이 불격마다
 너어미의 평성경력 더강이르 한줄알아
 말만hood 쎄가록난 이말할것 업직마는
 어미스정 너아랏고 이슈지울 고록노라

한 평생(그래봐야 30년이다)을 살아오면서 곡곡이 맷힌 소희를 만분지일 이라도 기록하고자 함이 첫째의 동기이나 그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팔 연 아에게 평생 경력을 알려 주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도는 그것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근본적 동기는 맷힌 소희, 원한인데, 이 원한을 풀어버리는데 있다. 그 원한은 폭로함으로써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폭로의 방법이 기록이었으나, 이 기록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님에 그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작품의 내용은 기구한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소희의 피력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한의 토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① 무정히 돌아가던 따뜻한 봄바람은
 여류세월 재촉으로 시원한 봄바람이
 즐유롭게 부러온대
 울화소희 답답호온 이가슴을 쉬이렸고
 연연약질 일신이 중한원한 못이겨셔
 썸揄옥수 두손으로 힘업시 턱을고여
 후유한숨 한마디를 나는대로 길게쉬며
 먼손을 바라보고 경신업시 안진사람
 천지가 광대호나 나박찌야 쏘잇든가

이러한 묘사적 표현에는 일관성과 긴밀성과 질서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곧 中心의 착잡함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무정히 돌아가던 여류세월의 재촉이 있어 시원한 (또는 따뜻한) 봄바람이 자유롭게 불어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무정한 세월의 흐름은 나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나의 사정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따뜻하기도 하고 시

원하기도 한 봄바람을 불어 왔다. 봄의 생기를 따뜻하고 시원하게 감지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사정에 따뜻하고도 자유롭게 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그것은 오직 세월의 변환일 뿐이다. 세월과 조화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그 홀로임이 더욱 처절히 느껴질 것이다. 그리하여 턱을 고이고 한숨쉬고 먼산을 바라보고 정신없이 앉았다. 천지가 광대하나 나는 홀로일 뿐이다.

② 압학잇난 단석손과 뒤에잇난 쥬스봉은
 신라천년 고도국의 천명한 그손인대
 홀지에 음겨졌다 이순이난 보이준코
 히미한 흰구름은 오락가락 할뿐이요
 금정사 낫불이며 쥬스암 져문경쇠
 조석반을 째맞느라 울근만은
 오늘은 아니운가 이귀로난 들이준코
 몽농한 푸른연기 잇꼬끈칠 뿐이로다
 속고속은 이소회를 뉘대하야 설화하며
 다정한 뉘를대하니 실큰설화 흐즈한이
 아무리 다정한들 아라줄가 시우준코
 헬영아르 쥬드라도 다말호기 어려워라
 이라아서 고만두고 너소회를 너가 알고
 너소회를 너말호지
 이리실생 통곡호고 참다못 할슈업셔
 문방사우 지필묵연 추리추리 불너님지
 저선싱 조호닐랑 너소회를 시러쥬고
 필묵연자 자네들은 내소회를 기록하자
 홀너나난 이눈물을 위력으로 억제하고
 겹출하는 이심곡을 실나리듯 나려내니
 원통한 이신세난 망극고도 망극하다.

정신없이 앉아 있는 자의 눈에는 거기에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단석산과 주사봉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오락 가락하는 구름만, 그것도 희미하게 보일 뿐이요, 조석반을 재촉하노라 울리던 금정사의 낫북 소리와 주사암의 저문 경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몽롱한 푸른 연기만 일뿐 정신없는 나에게 그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느낌을 일러 절대고독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다정하다고 하나 삭고삭은 소회

를 알아 줄가 싶으지 않고, 설령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中心所懷를 다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쌓인 소회가 한량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정이니 나의 소회를 나에게 말할 뿐이다. 이것은 말로만 했을 때 독백이 된다. 넋두리이다. 그러나 딸 연아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니 述懷라 하겠다. 전달 받을 자와의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거리가 있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문방사우 紙筆墨硯이 필요하다. 술회자가 기록할 능력이 없으매 이 부분은 허구이다. 형식적이다.

이리하여 첨출하는 심곡을 실 나르듯 풀어내니 원통한 신세는 망국하고도 망국하다. 이 망국하고도 망국하기 그지없는 원통한 신세를 풀어나가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요 또 의미이다.

2) 出生과 孤子

③ 전생차생 무산죄로 이몸이 삼겨나서
 낙지한 오삭만에 엄부일코 자모일코
 고고혈혈 어린몸이 어미업시 자라나니
 어미업난 어린유아 젓먹자고 실피우니
 인비목색 간장이야 뉘아니 시러하리
 우리조모 날대하야 간간히 말삼하대
 돌연실모 너일신이 십여세 자라나니
 속담애 말이잇다 죇연의 고생이야
 갑주고도 못산다니 헛속담을 할이잇나
 너장래야 할량업지 이리정영 하신말삼
 암암이 어재온듯 팔십향년 우리왕모
 엄년이 하세하니 망국한 하해은덕
 어난곳 갑하보며 십육세 나의몸이
 성인도 못하였다
 할마야 나를두고 구원으로 가단말가

태어나서 16세까지의 내력이나 이는 전연에 의한 실상의 파악이기에 관념적 재경험일 것이다. 태어나 다섯 달만에 어미 아비를 다 잃은 천애의 고아, 이것만해도 그의 원통한 사정은 이미 말해졌다. 그 정황을 “어미없는 어린 유아 젓먹자고 슬피우니 人非木石 간장이야 뉘 아니 스러하리”로 충분히 남

의 동정을 살 수 있다. 그러한 화자는 할머니의 기르는 가운데 그대로 장래의 행복을 꿈꾸며 자라 왔다. 그러나 그 할머니마저도 화자의 나이 16세 未成에 돌아가시니 이제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팔자가 기박하다 할 수밖에 없다.

3) 出嫁와 移鄉

- ④ 조혼하난 풍속으로 삼칠세에 성혼하야
 부득이한 오가사에 삼일우귀 하울격애
 인사도 알듯말듯 백년구택 들어셔니
 쇠댁에 후품시로 일신이 무양터니
 원수놈에 갑인년은 나에게난 큰원수다
 가화가 미진하야 죄짐이 시초른가
 서간도애 이거이향 형제상의 내정하야
 이해추풍 팔월일에 어서가자 재촉하니
 너필종부 옛법으로 아니가자 할수없고
 리별이야 리별이야 고향산천 하즉이야

고고혈혈의 가련한 신세가 17세에 성혼하여 새로운 의지처를 얻게 되었다. 부득이한 형세에 삼일우귀하였지만 백년구택의 시가에 들어서니 그 후 품으로 일신이 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되지 않아 甲寅年 (1914?) 家禍가 미진하여 형제가 상의하여 西間島로 이주하게 된다. 갑인년의 가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일합방 이후의 間島에의 流移民의 예들은 흔히 있었던 것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은 바로 그의 不幸의 兆朕의 始初가 된다. 男婚女嫁에 의해 媒家로 자리를 옮긴 것은 당연하나 이 갑인년의 경우는 이국인 서간도로 거처를 옮겨 고향을 떠나가게 된다. 여기에 思鄉의 心懷가 더 보태어진다. 不幸은 끝이 없는 모양이다.

4) 西間島로 移住

- ⑤ 고국산천 다지나고 만리절역 드러셔니

강산도 생면이요 풍토도 혐악할뿐
 흥악하고 놀나울스 외국인종 보기싫어
 이러그러 노상고싱 십칠일 경과후에
 관진현이 무엇인지 포다형이 여기로다
 이웃업난 집한체를 이것을 집이랑고
 순잡곡의 음식을스 이것을 음식이라
 거쳐음식 흥괴하기 일성에 처음이라
 만리타국 무한신고 원망한들 무익하고
 나는심증 참아가며 너외슈슉 의지하야
 봄바람에 두견성과 가을달에 잔나비난
 너관한등 깁흔밤에 고국성각 실픈운다
 여히의 북쪽두덜 월죠의 남쪽가지
 무지흔 금슈들도 고향을 잊잔크든
 하물며 스람이야 난감할스 칙회일다

서사와 노래의 차이점은 서술시체에도 있다. 노래에서는 그 시체를 현재로 하여 현장성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서가 강조된다. 그것이 곧 그리어내는 것이다. 고국과 이국의 차이를 “강산도 생면이요 풍토도 혐악할 뿐, 흥악하고 놀라울사 외국인종 보기 싫다”고 하여 異國風土와 그 人種에 대해 혐오감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생활의 주된 조건인 거처와 음식이 흥괴하기 처음이다. 이러한 처지에서 짐승들 마저도 思鄉心懷를 부추기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客懷이다. 여기서의 喪失感은 곧 客懷이다.

5) 嚫夫

- ⑥ 그러나 승향회포 서로서로 위로하고
 일단심중 바라기난 관후흐온 군즈씨와
 이털이다 빅발토록 빅년동락 질거하야
 아달두고 팔을나아 이평성을 넘기갖고
 터산갓치 비긴마암 일조허스 가소로다
 무하흐온 증세로서 슈월포 신음할지
 이마암을 위로코져 위황중도 혼난말숨
 부더걱정 너무맡게 혈마회춘 머지안치
 일가권의 용녀심을 이러억지 식이더니
 신룡씨 멀어시며 편작이 업스시니
 할슈업난 그병세를 뉘힘으로 구하너리
 천방만약 실썩업고 아흘안에 운명힌니

천천만만 씀밧기라 애고답답 이원일고
 청천도 변식이오 빅일도 무광이라
 이십오세 청춘으로 무산갈길 그리속히
 학발존안 부모님전 이리먼저 가단말고
 자식이란 실것업고 사세유아 짜분이라
 빅년히로 헛말되고 오년동거 근근호야
 일괴혈육 아달업시 유명이 갈려지니
 사라잇난 촛일신은 이십일세 방년이라
 죽난이나 스난이나 적막신세 일반일식

만리타국에서의 사향회포가 지극하지마는 내외수숙과 부부가 위로하며 지낼 수는 있다. 그러나 오직 의지하여 백년동락하자 한 남편의 존재야말로 어찌면 삶의 총체적인 의미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고향 아닌 이국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천방 만약이 무효하여 25세의 청춘으로, 그것도 부모에 앞서 가버렸으니 화자는 21세의 청상이 된 것이다. 이 이상의 원통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량없으리라 기대했던 장래의 행복이 일조에 사라지고 말았다. 17세에 부부되어 겨우 5년 만에 4세된 딸 하나를 얻고 남편을 잃은 것이다. 이 이상의喪失이란 있을 수 없다. 다시 적막신세로 돌아갔다.

6) 遺腹女의 出產

⑦ 이희츄풍 팔월일로 임히순장 지니라니
 소실한 츄풍성은 천리타향 더소실코
 원통흘샤 장레이야 외국장례 더욱설다
 외로온 원통흔빅 우리고국 촐쟈간가
 천익지각 멀고먼더 날다려다 여기두고
 말리견정 이십청춘 뉘게의탁 호여라고
 아쥬영이 이져불고 만리구원 도라간고
 청산제조 적막호더 빅운황염 벗을삼아
 이성성각 바히업시 주야흔즈 누어실지
 외순가진 이일신을 츄호인들 성각호리
 구원이 몇만리며 천더가 어디미오
 복중에 기친혈육 불각중 슈삭이라
 우리신세 기박함을 텐디신명 도라보라
 불횡중 다행으로 일개남즈 패싱호야

한번가고 다시못온 부형전형 가져다가
 세상에 낫든흔적 영원히 기쳐쥬고
 홍황업난 난마암도 그것을 즐미삼아
 이세상 남은세월 지리세월 빠른닷시
 이럿타시 더망타가 낙심할수 싱너이라
 텐도도 무지흐지 무지키로 이덧흔가

소슬한 가을 바람에 외국에서의 장례를 슬퍼 지내고 나니 천애지각 멀고 먼데 데려다 혼자 두고 가버린 님에 대한 원망 또한 기막힐 정도이다. 게다가 청산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마저 적막한데 白雲黃葉을 벗삼고 있을 뿐. 정처 없는 백운과 곧 떨어지고 말 단풍잎들도 자신의 처지 더욱 분명하여 이승의 생각은 바이없다. 주야로 혼자 누었으니 쓸모 있는 아들 하나 없이 딸자식 하나둔 일신이 가엾기 짹이 없다. 그러나 불각중 복중에 끼치고 간 자식 있어 一個 男子 快生하기를 희망한다.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세상에 태어났던 혼적이라도 전하며 남은 세월 재미를 보려한다.

그러나 그 기대마저도 꺾이어 生女하여 낙심한다. 이 또한 기대의 상실이다. 天道가 원망스럽다. 철저히 기대가 배반당했다. 원망의 점증이다.

7) 媳母喪

⑧ 장례후 시월달에 아즈바님 고국횡초
 원로왕반 그사이가 삼십삭이 넘을식라
 금슈갓한 호국인종 테모도리 전혀업셔
 흥특호 용모이며 괴괴호 복식으로
 쥬인유무 불계호고 니외분별 바히업셔
 니왕빈번 혼난모양 언선히도 불슈업다
 삼십리밖 친척집에 올겨서 학가호야
 업든의지 잊개호고 이러그려 넘기랴니
 무한고초 열력이야 다말호조 한정업고
 아즈바님 고향가서 부모님전 뵈온후에
 원통호온 언극소죠 아쥬덥혀 살지안코
 어마님을 괴시웁고 쏘그곳을 두로실지
 육순노경 증정시로 모즈상별 일년이라
 모즈상면 반기시려 하로밥비 와겟난더
 어난션당 도라갓서 유유히 늑기면서

어마님 만리횡초 반길줄도 모로난고
 고부상더 닷시호니 망극익통 식로워라
 익년을묘 스월일에 아바님과 둘제식숙
 부즈형제 단합초로 쪼이곳을 두뢰겟서
 생명참척 할반통한 널리관역 흐시읍고
 만리타국 지지종적 외롭지 아니토록
 극력으로 주선호야 일쳐단雠 흐엿스나
 가화도 미진하고 노천이 미워훈가
 이회유월 초구일에 쪼이게 무산일고
 애통할사 가이업소 어마님 상수이여
 구원이라 혼난곳이 만일경녕 잇계다면
 그리웁던 모즈분의 면목상더 닷시호야
 이성천륜 미진원한 낫낫설화 다시할 듯

남편의 장례후 10월에 시숙(맏이인 듯)이 고국행차를 하는데 돌아오기까지 삼사 삭이 넘을 것이다. 이 기간동안 남정네가 없는 집에 (형제가 왔던 모양인데) 호인들이 사오납게 집에 들락거려 그것을 피해 삼십 리 밖 친척 집에 합가하여 지내니 그 고초가 말할 수 없다.

한편 고국에 갔던 시숙은 남편의 죽음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시어머니는 모자 상봉을 위해 하루 바삐 오셨으나 가신 남편은 돌아올 줄 모른다. 남편 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 망극한 애통 새롭기만 하다.

다음해 乙卯年(1915) 둘째 시숙과 시아버지가 부자형제의 단합차로 또 서간도로 들어 왔으나, 비로소 아들과 아우를 잃은 그 참척에 할반통한하나 관역하고 만리타국 객지의 종적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극력 주선하였으나, 가화도 미진하고 성낸 하늘이 미워한 것인가. 이 해 6월 초 9일에 시어머니의 상사를 당하게 된다. 이제는 애통하기보다는 구원이라 하는 저승이 있다면 그리던 모자가 다시 상면하여 이승의 천륜과 미진한 원한을 낱낱이 설화하기를 바란다. 애통함이 지극하면 눈물조차 마르는 모양이다.

8) 還故鄉

⑨ 그학축풍 팔월일로 닷시환고 단정호야

고국산천 바라보고 등정을 헤려호니
 나남업시 환고향이 반갑다 하련마는
 소쳐도 남파달라 도로혀 서름된다
 어마님 모즈분의 아람업산 체풀이나
 환고호난 오날길에 합의반구 할슈업고
 모즈분 분묘암회 하즉초로 실성통곡
 이공산에 이우름도 오날뿐이 아니런가
 한흡다 이도로난 너무도 낙락호지
 관구야 못가시나 혼嬖조초 못가시랴
 양양호신 모즈분의 불미호신 혼령이여
 변풍삭설 심한곳에 외로이 겟지말고
 저의이번 환고길에 부더합씨 가스이다
 사생은 달랐으나 향산은 가셔야지
 짐승같은 호국귀신 추우공산 추추한데
 예양국의 신도로서 어찌같이 계시을고
 혼령이 돌아와서 함께고국 가사이다
 어마님요 저난가오 군즈씨오 나는가오
 부라진들 더답업고 뵈오랴니 전형있나
 거년 이달에난 군즈씨여 날바리고
 다시못을 황천길을 야속히도 거더니만
 금년 이달에난 너가군즈 바려두고
 슈년짜난 고국길을 무정이도 도라간다
 아람업산 혼령이나 아닌지 모로난지
 유명이 영격호니 조식알슈 업스오더
 합씨왓다 혼즈가난 이심회야 형언호리
 아바님 부자분만 호디독존 못오시고
 그남은 슈숙모녀 일진히 도라울지
 암녹강 다다르니 싱리스별 쏘설워라
 아바님요 잘계시오 며날아 잘가거라
 형님요 편키잇소 이스람아 편키가게
 이리실성 통곡하고 눈물로 하즉호니
 잇난이나 가난이나 망국소회 일반이라
 한거럼 두거럼이 두세번식 도라보니
 우둑허니 멀니셨서 바라보는 그거동은
 거럼마다 멀어지고 석양산식 뿐이로다

甲寅年(1914) 8월에 서간도로 가서 乙卯年(1915) 8월에 還故鄉하게 된다.
 만 1년이나 햇수로는 2년이다. 나남없이 환고향이 반갑다고 하련마는 화자
 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별이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호지
 에 묻어 두고 가야 한다. 실성 통곡으로 하직해야 한다. 그러기에 환고향의

길이 낙락할 뿐이다. 그 묻혀 있는 体骨이야 返柩할 수 없지마는 묻히지 않은 혼령이야 변풍삭설 십한 이 곳 호지에 외로이 있지 말고 부디 함께 가기를 부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짐승같은 호국 귀신이 추우공산에서 추추한데 예양국의 신도로서 어찌 호국귀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고 같이 고국 가기를 권유한다. 그러나 부르짖은들 대답이 없고 뵈오라 해도 형체가 없다.

지난 8월에는 남편이 날 버리고 다시 못을 황천길을 야속히도 가더니만 올해 8월에는 남편을 호지에 내버려두고 무정히도 고국으로 돌아간다. 함께 왔다 혼자 가는 그 심회를 어찌 형언이나 하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숙의 내외는 호지에서 오지 못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암록강을 건너는 그 생리와 사별 또 어찌 형언하리.

“아버님요 잘 계시오” “며늘아 잘 가거라” “형님요 편케 있소” “이 사람아 편케 가게” 이렇게 실성통곡하고 눈물로 이별하니 망극한 소회는 피차에 일반이다. 그러면서도 한 걸을 두 걸음에 두세 번씩 돌아보니 우뚝하니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 거동은 걸음마다 멀어지고 마침내는 종적없이 석양산색만 보일 뿐이다. 또 한번의 생리 사별을 겪어야만 했다.

고향에 돌아옴도 모두 상실을 동반한 것으로 기쁨이 아니었다.

9) 遺腹女의 死別

⑩ 그러그려 차이올나 괴초의 고동소리
 여셔가즈 지족으로 고향을 득달하니
 산도예전 보던청산 물도예전 보던녹슈
 반기이며 맛는스람 무비예전 보던스람
 산천도 다르잔코 인물도 일반이되
 엇지하야 우리횡식 가고오난 이중간에
 아쥬창상 번호엿셔 고금이 달랏난고
 철석아닌 구곡간장 구비구비 녹아질닷
 도라온후 얼마못희 유복녀를 쪼업신니
 천리원로 업고안던 그일이 더욱셜다
 심하게도 괴험하다 이일신이 웨이런고

고향의 산천과 인물은 변함없이 예와 같은데 돌아온 행색은 참상으로 변

했다. 대비되어 나타나는 그 모습에 구곡 간장이 구비 구비 녹아질 듯 애통한 심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한번의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복녀를 잃은 것이다. 유복녀로 태어나 죽은 그도 불쌍하지만 천리 원로에 업고 안던 그 일이 더욱 깊다고 말한다. 정의 그리움이리라. 팔자가 기험하다. 험악하고도 기박하다는 말이다. 일신이 왜 이러한지 모를 지경이다. 얻음의 기쁨보다 잃음의 슬픔이 더한 법. 얻음은 잃음을 전제한 것이지만 잃음을 예견하지 못하기에 그 잃음은 슬픈 것이다. 그는 왜 잃음만 경험해야 하는가?

10) 媳父喪

⑪ 반가울수 병진숨월 아바님의 환고시여
 륙순로경 거력으로 로곤감당 엇지헛소
 무스환초 혼여시니 하정에 반가오나
 사라계신 아달님과 죽은벽꼴 아달님을
 사싱간 형제분중 하나다려 못오시니
 이일ဿ 호오마는 셉ဿ한들 엇지흐리
 도라오신 스연인적 기미구월 초육일에
 이원일고 구시상스 호천이 망극하다
 실하번연 스형제분 맛분은 환고못학
 만리왕반 쉬우실가 분곡도 못흐시고
 셋지분은 원통이도 황천직이 먼저되고
 쇠빈호신 생즈님니 다맛형제 쁈이로다
 주식되야 망극인통 가감이 업시련만
 구경흐온 부모실전 원통히도 참변되야
 부모집상 한번안코 부모흉중 병만너흔
 그신세도 참혹지만 그도리도 불효로다
 참혹불효 고스흐고 이일신을 엇지할고
 죽고모린 벽꼴이나 선산안장 못흐고서
 호산천리 층운곳에 외로잇난 그무덤은
 이눈에 보이난듯 싱각스록 병이된다
 즈미업난 이세상을 이력져려 넘기다가
 가련한 일부봉토 죽잔연 닷시보려
 오미결심 궂게흐나 쇼원성취 되을난지

丙辰年(1916) 3월에 시아버님이 환고향 하셨다. 무사히 귀국함이 반가운 일이나 이 일로 두고 온 남편이 또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아들

도 그냥 두고 왔다. 섭섭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혼자 온 이유야 알 수 없다.

시아버지 돌아온 지 4년만인 己未年(1919) 4월에 이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별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이다. 侍殯하는 아들이라야 네 아들 중 둘뿐이다. 맏이는 서간도에 살아 있고 셋째는 죽어 그곳에 묻혀 있다.

아들 되어 부모 앞에 원통히도 참변 되어 부모 집산 한번 아니하고 부모 흥중에 병만 들게 한 그 참혹 불효야 말할 것 없지마는 그 일신을 어찌해야 하나. 죽고 모르는 백골이지만 이를 선산에 안장하지 못하고 호산 천리 추운 곳에 외로이 있게 하였으니 그 무덤이 눈에 보이는 듯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병이 된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 죽기 전에 언젠가는 그 가련한 일부 봉토나마 다시 보고자 오매 결심 굳게 하나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될지? 오매불망하는 그 심회 읽을 수 있다. 이 심회는 곧 相思이다. 그 상사는 다음과 같이 펼쳐진다.

11) 相思

⑫ 격격흔 빈방안에 경경잔등 벗을삼아
 전전불미 잠못들고 유유초한 한정업서
 한습이 바람되고 눈물이 비가되어
 쇼쇼한 일장풍우 나의정신 산란한다
 지극원통 그소희난 잊지못할 그형용을
 써여서난 볼슈업고 꿈에나 만나보아
 남디호야 못할수형 만분지일 흐여보려
 침상에 나아갓서 우력으로 조려한들
 서늘호 원앙침과 낭낙호 비취금에
 쇼쇼한 진역바람 북향을 요동하고
 교교호 시벽달빛 서향을 번져오니
 바람아 소리말고 달아 발지마라
 기력이난 무산일로 쑥을지어 슬피울고
 원촌에 계명성은 시난날을 지축한다
 너들은 무산일로 처량한 나을미워
 잠한경을 못이루개 이흉장을 녹이난고
 압희누인 연아년을 머리실실 만지면서
 이것사 너난엇지 잠이이리 김히드러
 일거불환 너부형의 심각도 바히업고
 만단슈희 너어미를 위롤줄도 모로난고

이런성각 저런말로 몇밤이나 시윗난고
 천고영결 흐던날에 나도짜라 죽엇시면
 이창즈가 이럿토록 설치지나 아니할걸
 무순영광 닷시보려 오늘까지 살았던고
 낫이되면 낫이길고 밤이되면 밤이길어
 원슈의 쥬야간에 하나도 결러잔코
 남들이 말흐기난 짜린세월 한탄인더
 나난흘로 엊지흐야 지리세월 한탄인고
 죽고스난 그리슈를 뉘라서 마련한고
 나도어서 빅년후에 구원으로 도라가서
 염나부에 호쇼흐고 상대님께 원정흐야
 조실흐온 부모만나 술하장성 흐여보고
 구고를 다시뵈와 지성으로 봉양흐고
 니외상봉 닷시흐야 빅년동낙 질거흐고
 유주성녀 번성흐야 이원한을 풀어볼가
 일평성이 잠간인더 이성지합 허무하다

이 부분은 바로 상사별곡이다. 우선 장면설정을 밤으로 하고 있다. 적적한
 빈 방안에 (딸 연아가 있으나 남편이 없기에) 벗삼은 것은 경경한 잔등뿐이
 다. 꺼질 듯 가물거리는 등잔불 하나, 이것은 벗이면서도 또한 화자의 형상
 화이다. 그래서 경경하다고 하였다. 자야 할 밤이지만 전전불매하고 있다.
 한정 없이 길고 긴 嗟恨 때문이다. 이 차한으로 말미암아 이는 한숨은 바람
 이 되고 흘리는 눈물은 비가 되어 소소한(쓸쓸한) 비바람을 이루니 정신이
 더욱 산란할 수밖에 없다. 內心을 이렇듯 外面化하였다. 그러하므로 상황과
 심회가 일치하여 그 嗟恨을 한층 고조시켜준다. 이것이 표현이다.

이러한 가운데 至願極痛한 所懷는 잊지 못할 그 남편의 형용을 보고자 하
 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그릴 수밖에 없으나, 이는 그리움일 뿐이기에 직
 접 그 실체를 보고자 함이니, 곧 만나고자 함이다. 만나서 그간의 사정을 설
 화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침상에 나아가 우력으로 자려 하나, 서늘한 원앙침과 냉락한 비
 취금에 소소한 저녁 바람은 북창을 흔들고 교교한 새벽달은 서창을 비추는
 데, 기러기는 짹을 지어 슬피 울고 계명성은 새는 날을 재촉한다. 이러한 정
 경은 잠을 羹고 만다. 만상이 나에게는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서 그의 흘로
 임이 더욱 강조된다. 잠을 못 이루니 꿈을 꿀 수 없고, 꿈을 이루지 못하니

님을 만나 설화할 수 없다.

이려므로 앞에 누인 땔 연아에게 관심이 미친다. 열살 남짓한 어린 땔에게 원망한다. “일거불환 너 부형의 생각도 바이없고 만단수회 너 어미를 위로할 줄 모르는고”라고, 이런 생각 저런 말로 몇 밤을 지새우나 상사의 정념은 풀 길이 없다. 이러할 때 토로되는 언어는 “천고영결 하던 날에 나도 따라 죽었으면 이 창자가 이렇도록 끊이지나 아니할걸. 무슨 영광 다시 보려 오늘까지 살았던고?”라는 후회이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할 해후를 저승으로 미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가겠지만 이 저승길도 자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승의 시간이 길게만 느껴진다. 남들이 말하기로는 빠른 세월이 한탄인데 나는 홀로 어찌하여 지리세월 한탄이고 나와 남이 같지 않음을 대조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들은 이승에서의 삶에 집착하나 나는 저승으로 감을 절망적으로 갈망한다.

죽고사는 그理致를 뉘라서 마련한고
나도어서 백년후에 구원으로 돌아가서
염라부에 호소하고 상제님께 원정하여
조실하온 부모만나 슬하장성 하여보고
구고를 다시뵈아 지성으로 봉양하고
내외상봉 다시하여 백년동락 즐겨하고
유자생녀 번성하여 이원한을 풀어볼가

이처럼 화자의 갈망은 이승의 삶을 다한 뒤의 것이다. 그 갈망이라야 이승에서 남들과 같이 다하지 못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부모술하에서 장성, 구고의 봉양, 내외의 백년동락, 유자생녀가 그것이다. 이처럼 한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그에게서는 빼앗김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삼생연분 없음과 사주 신수의 불길을 말한다.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없으매 백년생세 사는 동안 천수만한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상부에 대한 상사가 더 지극하여 연진의 떠는 칼과 성도의 깨진 거울이 다시 합할 날이 있어 여한을 쾌설하였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다시 볼 날이 어느 때인가라고 묻는다. 대답이 없으매 미지수이다.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것은 절망적 갈망이다. 상사만 있을 뿐이겠다. 그러나 저승에의 갈망에도 이승에

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12) 餘恨

⑬ 연아금년 십습세라 네나어서 장성호야
 인심잇고 후품한집 단아하고 조흔신랑
 너눈보고 수회갈려 봉황상유 놀게하고
 삼동서 동서중에 뉘이든지 다남호야
 격막히 죽은식숙 입후나 식여쥬어
 무쥬공산 외로온흔 의지나 잊게하고
 고험막심 촉일신도 며날보고 손즈보면
 오날죽고 말지라도 이눈을 쌈을터지

이것 또한 인간 누구나의 소망이고 삶의 목표이다. 이러하므로 이 화자는 남달리 특별한 것을 소망하여 그것을 이루지 못해 원망하거나 한탄한 것이 아니다. 남들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함에서 오는 원망이요 한탄일 뿐이다. 그 남들과 같지 않음에서 오는 회포, 그것을 술회한 것이다. 이 술회의 가운데서도 상사의 회포가 더욱 큼에 상사의 노래 같기도 하나, 이 상사가 술회로 이끌어 갔을 뿐이다. 기구한 일생의 서사처럼 보인다. ③단락에서 ⑪단락까지가 한 개인의 생활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서사가 목적이 아니라 맷힌 회포를 풀어내는 것이기에 술회가가 된다. 그것은 마지막 단락 ⑭에서 스스로 밝혀진다.

III. 結論

古庵 朴坤復은 19세기 끝자락에 태어나 20세기 前半期를 살아가면서 주로 漢學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 때는 정치적인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이 혼효·충돌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漢學을 공부했다는 것은 생장 환경적 요소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터이지만 주체적으로는 옛 것에의 관심이 더 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편향적이지만은 않아서 새것을 공부한 사람들과도 상종하였다. 아마도 옛 것

을 고집만 한 것이 아닐 것이다. 민족의 장래도 걱정하였고, 전통적 미덕이 사라짐을 안타까이 여겨 교육으로 올바른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이었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의리를 숭상하는 전통적 정서의 함양에도 관심하였던 듯 李建昌의 <喂馬行>도 國文化에 고심한 것이 그런 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옛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것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漢詩의 창작에서 新詩의 창작으로는 옮겨가지 않고 오히려 부녀자들에게 유행한 가사를 창작하였다. 이 가사 창작의 근원적 의도가 教化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랫자리에 있었던 女性의 教化에 이런 형태의 문학을 이용한 것이나 아니었던가 한다.

그의 국역 <말먹이는 노래>도 가사체에 닮아 있지만 <桃川別曲> <怨恨曲> <惜別歌> 들은 가사로 지은 것 같다. 이들이 다 그 창작의도는 다르겠지만 전래적인 정서의 함양이 그 결과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도천별곡>의 뒷부분에서

여자유행 본분으로 오늘놀고 갈라진후
각기시댁 돌아가서
무형하던 오늘담소 꿈끝에 생각말고
일생조심 굳게하여 효봉구고 힘써하고
승순군자 법을따라 박빙을 임한 듯이
전전궁궁 하게되면
과망한 칭찬소문 분외라 단망이라

한 것에서도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

여기서 살펴 본 <원한곡>은 꽤나 장편이다. 살아 온 날들을 설화하려니 길 수밖에 없다. 이해의 편의상 모두 14단락으로 나누어 살폈는데 ①~② 단락은 序曲에 해당한다. 그 중 ①단락은 時候라 할 수 있는데 거대한 자연의 이법 속에 보잘 것 없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러 그의 홀로임을 절감케 된다. 광대한 천지간에 홀로인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그래도 할 말이 있다. ②단락은 창작동기를 말해 주어 독자로 하여금(또는 청자로 하여금) 읽을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것은 맨끝 終末의 ⑭단락에서 한 번 더 노래하

여 끝맺는 수미쌍팔의 구성을 하고 있다.

③단락에서 ⑪단락까지가 살아온 역정에 대한 술회이다. 단락지움의 기준은 상실에 있다. 각 단락에 상실의 사건과 주지가 있다는 말이다.

③단락에서는 그의 출생과 생후 5삭만에 부모 두 분을 모두 잃어 고아됨을 말하였다. 출생에서부터 기박한 삶이 시작되었다.

④단락에서는 17세로 조혼하여 出嫁함을 서술하여 새로운 삶을 기대하였다.

⑤단락에서는 이국의 서간도에서 갑작스런 育夫와 그에 따른 회포를 술회한다. 이와 같이 상실이 연속되어 ⑦단락에서는 죽은 남편이 腹中에 끼치고 간 유복녀를 출산하기는 하나, 이어 ⑧단락에서 고향서 모시고온 시어머니를 또 잃게 된다. 이러한 애통을 겪고 이국으로 유이한지 일년 남짓하여 還故鄉하게 된다. 이것이 ⑨단락의 내용이다. ⑩단락에서는 유복녀를 사별하게 된다. ⑪단락에서는 늦게 귀향한 시아버지를 또 잃게 된다. 이러한 상실을 6년간에 다 겪게 되었다. 태어나 출가하여 남편을 맞이한 것 외에는 모두 상실만 경험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그의 삶의 내력이다. 모두 20대에 겪은 일들이다.

이러한 상실 뒤의 그리움, 그것이 ⑫단락을 형성한다. 이 단락만을 독립시키면 <상사별곡>이 될 법도 하다. 그리움의 해결은 만나는 것 밖에 없기에 사후의 저승세계에서의 만남을 기약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에서의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딸의 배필을 찾아 짹지어 주는 일이고, 또 立後하여 며느리보고 손자 보아 남은 삶을 즐기는 일이다. 이것이 ⑬단락을 형성한다.

⑭단락은 結末이다. 딸에게나 자기의 평생 (그래봐야 30세까지) 경력을 알려 주기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만든 것이 아니라 기록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의 기록에 의도를 둔 것이 아니라 心中 所懷의 서술로 述懷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그 내용으로 판단할 때 화자(술회자)의 나이 30세에 이루어진 것이다. 기록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화자의 기록이 아니고 작자, 즉 古巖의 작품이다. 화자의 삶을 레퍼토리로 하여 작자가 작품화한 것이다. 화자가

술회한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文體가 화자의 것이 아니며 慣用的 表現들이 이따금 눈에 띈다. 얼마나 曲盡한 表現들을 얻었을까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의도의 진일된 표출에 노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된 개인의 생활사와 그 회포는 충분히 감지될 수 있어 딸아이 만의 열람에 그치지 않고 여인들에게 널리 읽혀 감동을 주었을 법하다.

이와 같은 가사는 근자에도 생산되고 있으나 그것이 문학으로서 이기보다는 하나의 표현 형태로 원용된 경우가 많다